

리얼리즘의 본질 더 깊이 파고 들어가는 ‘깨끗한 몸’의 열정

소설가 김원일 인터뷰

중진작가 김원일(62) 씨의 1987년작 단편 〈깨끗한 몸〉에는 강정택 손에 끌려 나선 열한 살 길남의 목간 풍경이 담겨 있다. 울산덕 할머니는 “털 뽑은 새끼라 따로 읍지로 얼마나 세기 씻기는지 아아 새끼를 빨강게 땀겨 놓는다 카이”라고 밝히는데, 길남 역시 어머니 강정택과의 목간을 어떤 면에서 일종의 고문이었음을 고백한다. 강정택이 길남의 몸을 억척스레 씻긴 까닭은 “더러운 세월 만나 애비없는 설움으로 남으 집에 얹혀 묵고 있지마는 씻은 몸처럼 늘 마음도 깨끗하게 지녀야” 된다는 것. 강정택은 이어 “깨끗한 몸맨쿠로 정직한 마음으로 어른이 돼서...” 말하며 물꼬를 들이키는데, 어른이 되어 ‘정직한 마음’으로 생을 들여다보는 길남, 곧 작가의 후일담은 소설집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에서 여봐란 듯 펼쳐진다. ‘털 뽑은 달구 새끼’ 마냥 씻기는 것이 아닌, 작가는 생의 이면 더께 낀 인물들을 정성을 다해 씻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실제 몸을 씻기는 대목은 이번 소설집 곳곳에서 드러난다. 표제작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에서 금순이 복합장애를 가진 남편의 몸을 씻기는 대목이나, 〈미화원〉에서 김씨가 정신지체장애를 가진 아들 중수를 씻기는 대목이 그것. 밑그림을 보아서도 짐작되지만, 이번 소설집은 장애를 가진 인물의 서사가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대구 인혁당 사건을 다룬 〈고난일지〉의 김씨가 그중 몸이 성한 편이라 할 수 있으나, 그 역시 부조리한 시대의 압박과 고문에 시달린, 정신적 장애를 가진 인물이므로 ‘장애를 가진 인물’의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문학이 갖는 사회적 책무가 있다면 부조리한 사회와 그 이면에 자리한 어둠을 조망하는 일일 것입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로 나가자고 떠들면 뭣합니까? 트럭째 정치자금 바칠 줄이나 알지 개인의 행복권을 위한 사회의 노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노인문제나 장애인문제가 심각해도 대안은 궁핍할 뿐더러, 잠재적 장애자인 일반인들 역시 집단이기주의에 젖어 넘비(Not in my bag yard)

를 말하는 작태를 보노라면 말문이 막히죠. 문명의 오염을 정화시키는 이들이 장애인입니다. 몸과 정신은 망가졌을 지언정, 때를 타지 않은 그들에게는 선이 깃들어 있습니다. 단편 〈미화원〉 속에 그런 생각을 담아보았는데, 사회 병리현상에 대해 작가된 이가 등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반듯한 그의 말처럼, 소설 속 남루한 인물 역시 반듯한 생의 감각을 보여준다. 폐암으로 시한부 삶을 선고받고서도 죽음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미화원〉의 김씨, 복합장애를 가진 청년과 살면서도 어려운 이웃 돌보기를 주저하지 않는 〈물방울 하나 떨어지면〉의 김금순, 인혁당 사건에 휘말려 사형선고를 받고도 죽음이 죽음을 이길 수 있다는 초월적 세계관을 보여주는 〈고난일지〉의 김씨 등은 무딘 듯 보이지만, 눈여겨보면 잘 버린 칼날이다.

“나이가 들고 보니 세상을 보는 눈이 냉정하게 변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리얼리즘의 골격은 객관적이고 냉정한 문장에 있는 것이죠. 문창시절 저 역시 심미적인 문장을 의식하며 소설을 썼지만, 문장을 꾸미는 태도가 과연 바른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행여나 영상적인 꼴을 갖출까봐서 인물간 대화도 극도로 자제했습니다. 일상의 소소함과 가벼움을 내세운 소설이 난무하는 요즘, 문학의 힘은 치열한 언어와의 싸움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선배작가로서 모범을 보이고 싶었지요. 재기발랄한 젊은 작가들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세대, IT세대인 젊은 작가들은 또 그렇게 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설과 언어라는 두 축에서는 리얼리즘 문학의 전범을 보이지만, 그는 소설의 틀을 짜는 데 있어서는 40년 현역작가의 이력에 안주하지 않고 과감한 형식실험을 저어하지도 않는다. 2002년 황순원문학상을 받은 〈손풍금〉에서는 다큐 기법을 선보이는가 하면, 〈4가 네거리의 축대〉에서는 현재와 과거를 엮박자로 넘나들며 서사를 이어가는 기법을 택했다. 〈고난일지〉는 소설이라기보다는 객관적인 보도기사를 읽는 듯한 느낌을 자아내는데, 원로를 향해 가는 즈음에도 형식실험의 험로를 마다않는 작가의 치열



함은 2,3년 새 밀친 다 털리고 마는 셋된 작가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세상을 보는 눈 역시 한결 세밀해졌다. 소설 속 인물들에게서 한 발 떨어져 객관적인 형태를 취하지만, 그 시선만큼은 더욱 웅숭깊다. 그 시선이 어디까지 닿느냐 하면, 제목에서 밝히고 있듯 '물방울 하나 떨어지는 것' 까지 정밀하게 짚어낸다. 분단문학으로 대표되는 《마당 깊은 집》을 등진 걸음이 자폐청년을 만나 《아우라지로 가는 길》을 함께 건더니, 치매노인의 《슬픈 시간의 기억》까지 더듬고서는 마침내 남루한 생의 눈물까지 투사해 낸 것이다.

“동업자이기도 한 아우(소설가 김원우)는 어머니가 형을 왜 그리 모질게 매질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글을 쓰기도 했지요. 그 글을 쓰며 몇 번쯤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난 얘기지만 고문에 가까울 만큼 어머니는 저를 매질했습니다. 발가벗겨 놓고서는 솟포대를 써는 싸릿대도 온몸을 사정없이 때리는데, 싸릿대가 지나간 자리마다 그 자국이 무섭게 부어올랐죠. 매를 맞아 마땅한 잘못도 없었습니다. 남로당 조직책임이었던 부친이 월북한 뒤 신산스런 당신 삶을 견디는 방식이려니 생각했지만, 여전히 이해 못할 부분도 남아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경험했던 전쟁과 분단사를 밀친 삼아 왔는데, 이제는 다른 것을 써보고 싶습니다. 이번 소설집에서 장애인들을 등장시킨 것도 단순한 호기심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잘 알고, 또 잘 알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적 관심사인 것이죠.”

〈고난일지〉를 통해 얼마간 드러냈지만, 그는 올해 대구 인혁당 사건을 주제로 연작을 쓸 계획이다. 최근 대구를 찾아가 인혁당 사건에 희생된 이들

의 미망인들을 만나고 왔는데, 공교롭게도 '마당 깊은 집'이 있던 동아쇼핑센터 뒤 약전골목이 인혁당 피해자들의 활동주무대였음을 알 수 있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는 지 하루도 안 돼 사형이 집행된 어찌 꾸니없는 역사의 재판을 냉정하게 심판할 생각이다. 한편 미술가 피카소에 관한 원고도 최근 탈고를 마쳐 출간을 준비중이라는데, 먼저 나온 《발견자 피카소》를 증보해 “피카소 진면을 살펴볼 수 있는 책”임을 자신했다.

“제가 본래 문학청년이 아니라 미술학도였어요. 집안형편이 어려워 미술의 뜻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심이 문학으로 휘어지긴 했지만, 미술에 대한 미련이 있을 뿐 문학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깨끗한 몸, 정직한 마음'을 갖고 훌쩍 어른이 되어버린 길남, 곧 작가가 좁고 어두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 외로움도 무서움도 없다. 바람벽 아래서 둥글게 몸을 웅크린 남루한 생을 만날 때마다 그는 멀찍이서 그들의 '고난일지'를 웅숭깊게 들여다볼 뿐이다. 이렇듯 김원일 문학세계의 변모가 더욱 완숙해진 이번 소설집은 독자에게도 새로운 이정표임에 틀림없다.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깨끗하고 건강한 몸의 소설'을 제대로 얻은 까닭이다.

“물방울 하나가 고요한 수면에 떨어지면 그 중량으로 파문이 겹으로 커지며 넓게 퍼지다가 스스로 넉넉한 물에 섞여 자취를 감춘다. 그 이치와 같이 베풀이나 선행, 우리네 삶 그 자체도 그런 물방울 하나이리라.”

깊은 성찰은 시어오는 눈의 아릿함을 참는 데서 가능한 게 아니다. 사물과 인간의 바탕에 작가가 어떤 사유의 그물을 던지느냐에 따라 성찰의 밀도가 정해지는데, 물방울 하나의 움직임이 소설집 제목으로까지 확장시킨 작가의 정직한 그물코에 걸릴 때, 독자는 작가 김원일이 빛은 아우라 속에서 홀연 아득함을 느낄 것이다. ■

취재 박용두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